

대우건설인





여수 휴캄스 6NA 2MNB PJ(현장)

2023 5+6 CONTENTS

- 04 NEWS
 - 5+6 DAEWOO E&C NEWS
- 06 SPECIAL FEATURE
 - 내일의 에너지
 - 꿈을 펼치다
 - 에너지라는 희망의 빛
 - 꿈을 읽다
 - 지구와 나를 위한 저탄소 식단 실천법
 - 꿈을 잇다
 - 대우건설, 지구를 지켜라
- 16 THE BEST SITE
 - 여수 휴캄스 6NA 2MNB PJ
- 26 50 STORIES
 - 멀고도 가까운 나라 베트남
- 32 선배보고서
 - 더 크고 깊은 우물을 파다
- 36 MZ보고서
 - 결혼, 동상이몽
- 38 WE ARE CHALLENGER
 - 프라이빗 요트 투어
- 44 CURATION
 - 추천! 가족 나들이 명소
- 48 HEALTHY LIFE
 - 혹시 나도 카페인 중독?
- 50 TREND.ZIP
 - Chat GPT의 모든 것
- 54 CARTOON
 - 육퇴도 칼퇴
- 56 POST BOX 독자의견



북미 부동산 개발시장 진출 모색

정원주 부회장은 캐나다 토론토와 미국 뉴욕을 방문하여 해외부동산 개발사 면담을 진행했다.



2023.05.03

#해외부동산_개발시장_현황점검 #해외사업_포트폴리오_다양화
#해외사업_참여방안_논의



강릉 산불피해 주민돕기 성금 전달

회사는 강릉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릉 시민을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2023.04.26

#강릉시민_위로 #하루빨리_일상회복_기원 #피해복구_이재민지원



2023 한마음 결의대회

회사의 경영진 및 임원·팀장과 헤럴드 경영진이 2023 전사 한마음 결의대회를 가졌다.



2023.04.21

#2023년_경영목표달성 #북한산_우이령길_등반 #한마음_결의



CEO 안전점검

제주푸르지오더퍼스트현장에서 4월 CEO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2023.04.19

#봄철_안전사고_예방 #고령자_고위험작업투입_기준준수 #준공시점_긴장지속



ESG경영 강화를 위한 TCFD 지지선언

회사는 이사회를 열어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CFD) 가입을 의결했다.



2023.05.12

#기후변화공시_의무화추세 #탄소배출관련정보_투명공개
#친환경공법개발_탄소배출저감



‘안심동행주택 9호’ 완공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민관협력 사업인 ‘안심동행주택’ 9호가 완공되었다.



2023.05.02

#서울시_대우건설_한국해비타트 #주거환경_개선사업 #중증장애인_거주주택



수출용 신형 연구용원자로 건설공사 PJ(현장) 최초 콘크리트 타설

수출용 신형 연구용원자로 건설공사 PJ(현장)에서 최초 콘크리트 타설 및 기념행사를 가졌다.



2023.04.28

#의료_산업용_방사성동위원소_자금 #연구용원자로_수출목표
#15MW연구용원자로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독일에서 열린 'iF 디자인 어워드 2023'에서 '푸르지오 EDITION 전시관'이 실내건축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2023.04.19

#디자인분야_최고권위 #2년연속_본상수상 #푸르지오_디자인상품_우수성

NEXT ENERGY

내일의 에너지

꿈을 펼치다 에너지라는 희망의 빛
꿈을 읽다 지구와 나를 위한 저탄소 식단 실천법
꿈을 잇다 대우건설, 지구를 지켜라

“인간의 양심에 대한 궁극적인 테스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오늘 무엇인가를
희생하려는 의지일 것이다.”

– 게이로드 넬슨(미국 상원의원, '지구의 날' 주창자)

바야흐로 친환경을 넘어 '필(必)환경' 시대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국가는 물론이고 개인과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크고 작은 움직임을 실천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대우건설 역시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건설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만들어 가고 있는 변화에 주목하고 동참해 보면
어떨까요. 미래 세대가 살아갈 초록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니깐요.

에너지라는 희망의 빛

지난 5월 13일, 대우건설 임직원 가족들이 에너지 절약을 약속하고 에너지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태양광 랜턴을 만들면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이었다.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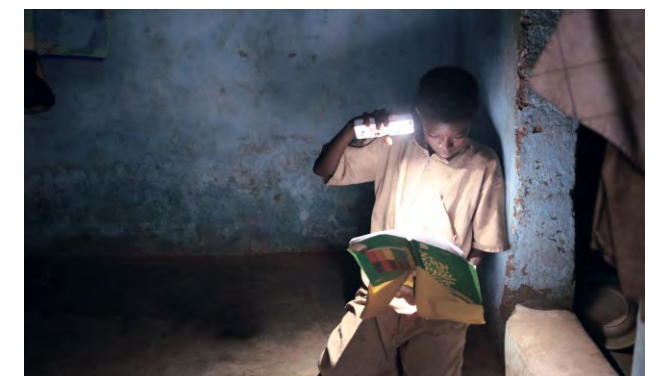
'꿈을 펼치다' 캠페인은 회사의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다음 호 주제는 '내일의 도시'입니다. 수중도시, 공중도시 등 50년 뒤 생겨날 도시를 상상해 보고, 그림으로 표현해 주세요.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완성된 그림은 원본 파일 그대로,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은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스캔하여 아래 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때 그림 설명도 잊지 마세요!

마감 2023년 6월 30일
수신처 홍보팀 김민정 대리 minjung.kim@daewooenc.com



전기가 없어 칠흑처럼 캄캄해지는 밤.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을 매일 겪는 이들이 있다. 세계 70억 인구 중 이런 밤을 보내는 사람이 약 17억에 이른다고 한다. 대부분이 남반구에 살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70% 사람들은 전기 없는 캄캄한 밤을 보낸다. 국제개발협력NGO 밀알복지재단의 '라이팅칠드런'은 아프리카 등 에너지 부족 국가의 어린이에게 직접 조립한 태양광 랜턴을 보내주는 친환경 에너지 나눔 캠페인이다. 태양광 랜턴은 밝은 태양 아래 5시간만 충전하면 최대 10시간까지 불을 밝힐 수 있어 아이들이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유 램프를

태양광 랜턴으로 대체하면 아이들의 호흡기질환 예방은 물론 가구 소득의 약 30%를 차지하는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어 자녀를 위한 교육 관련 물품 구입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화재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5월 13일 본사에 모인 임직원 가족 280여 명은 태양광 랜턴 조립 키트를 조립하면서 에너지의 소중함을 공감하고 에너지 빈곤국에 이를 기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제작된 태양광 랜턴과 희망의 메시지는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아프리카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구와 나를 위한 저탄소 식단 실천법

전문가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법 중 '저탄소 식단'을 꾸리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저탄소 식단이란 식자재 생산부터 음식물 쓰레기 배출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식단을 말한다. 지금 우리 집 식탁은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걸까?

*탄소 중립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된 상태.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탄소중립(Net Zero)이라고 한다.



탄소발자국과 밥상이 무슨 관계?

내가 걸어난 길에 남은 발자국처럼, 탄소발자국은 개인이나 기업, 국가 등의 집단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다. 탄소발자국이 질다는 것은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는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되고 그 결과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에서도 수많은 탄소발자국이 찍혀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탄소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한다. 이 말인즉슨 식량 생산 및 소비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상당량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탄소 배출의 주범, 육류

우리 식탁에서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육류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축산업의 비율이 14.5%에 해당하며, 그중 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65%라고 발표한 바 있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만 있는 게 아니다. 가축 분뇨에서 메탄과 이산화질소가 배출되는데, 특히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메탄 1톤은 이산화탄소 1톤보다 86배나 더 뜨겁게 공기를 데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메탄은 주로 소를 비롯한 가축의 위에서 음식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트림이나 방귀, 배설물의 형태로 밖으로 나온다. 저탄소 식단의 기본 원칙은 이렇듯 탄소 배출량이 많은 육류 섭취를 지양하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채식 위주 식단은 미네랄이나 비타민, 섬유질 등이 풍부해 오늘날 많은 현대인이 겪고 있는 대사증후군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저탄소 식단 = 비건 식단?

그렇다고 저탄소 식단이 비건 식단과 똑같은 것은 아니다. 둘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동물성 식품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비건과 저탄소 식단은 일맥상통하지만, 비건은 육류 섭취를 아예 금지하는데 저탄소 식단은 육류를 최대한 줄이거나 대체육을 섭취할 수 있다. 또한 비건 식단에서는 수입농산물이 문제 될 게 없지만, 저탄소 식단에서는 운송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이를 피한다. 비건은 육류를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자 방법인 식단인 반면, 저탄소 식단은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식사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는 법

저탄소 식단을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장을 봐서 집에서 요리하는 것이다. 또한 장을 볼 때는 가급적 생활권 근처에서 생산되는 로컬 푸드를 선택하도록 한다. 그래야 푸드 마일리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는 '먹거리의 이동 거리'를 뜻한다. 식품이 생산된 이후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동한 거리를 의미하는데, 식품의 이동 거리가 길고 무게가 무거울수록 사용하는 화석 연료의 양이 증가하고 배출하는 온실가스도 많아진다.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해 로컬 푸드(지역 농산물) 이용을 추천하는 것이다. 또한 로컬 푸드 중에서도 제철 먹거리를 선택하도록 하자. 계절에 맞지 않는 식품은 온실 난방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파트 베란다나 집 마당 등에서 직접 먹거리를 재배하는 것만큼 좋은 실천법은 또 없다.

대우건설, 지구를 지켜라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회사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DBS 등 대우건설의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관련 대표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바람이 불어온 새로운 시대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는 풍력이다. 그중 가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영월예코윈드 사업**은 강원도 영월에 4.2MW 규모의 풍력발전기 11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 연말 마무리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영월예코윈드 풍력발전 단지 건설은 미래 에너지를 직접 개발한다는 것 외에도 사업 곳곳에 환경 영향 최소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구조로 의미가 큰 사업이다. 당초 풍력발전기 24기에 80MW급 규모로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산림 훼손 면적과 생태계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발전기 11기, 46MW급 규모로 축소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 시행으로 훼손되는 산림면적은 그 이상의 대체산림 식생복원 계획을 통해 자연식생을 최대한 복원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지역주민이 직접 풍력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

갈수록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해상풍력 분야에서 회사는 작년 조직개편을 통해 **풍력사업 TFT**를 신설했다. 이로써 풍력사업 컨트롤 타워를 확보함에 따라 풍력사업의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한 방증으로 회사는 지난해 12월, 군산대학교와 함께 **군산지역 해상풍력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군산지역의 해상풍력 사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는데 추진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회사는 지난 5월, 한국수력원자력, 하이자산운용을 포함한 5개사와 대천풍력발전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천풍력발전사업**은 장흥군 대천리 산 57 일원에 약 5.56MW급 풍력발전기 14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회사가 자체 개발하여 MOU 체결사들과 함께 공동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월예코윈드와 마찬가지로 대천풍력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고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회사는 MOU 체결 이후, 정확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풍황 계측에 착수하여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여 회사는 해상풍력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7일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의 해상풍력 담당 자회사인 코리오제너레이션(Corio Generation)과 **해상풍력 발전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회사와 코리오제너레이션은 부산에서 3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발판으로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사업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영월풍력발전(차현장)(영월예코윈드)



해상풍력 발전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SUSTAINABLE
GROWTH

우리는 대우건설의 이름으로 친환경 녹색지도를 만듭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비추는 밝은 미래

태양광과 연료전지도 빼놓을 수 없다. 먼저 **감골 폐원지 태양광 조성사업**의 무대는 제주도다. 제주도는 2016년 '2030 탄소없는 섬' 정책의 일환으로 감골 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을 역점 추진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감골폐원지 농민 소득 창출을 위한 태양광 사업의 참여 기업으로 최종 확정되어 지난 2020년 제주시 전역 84개소에 설비용량 45.979MW급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했다. 감골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는 제주도 농가의 수익이 20년간 보장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농가에 확정된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감골 적정 생산을 위한 감골원 폐원정책과 농민소득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동시에 탄소 없는 섬을 도민 주도로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회사는 **연료전지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공기 중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에너지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의 안정적인 확대 및 관련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3년 6월,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분산형전원 보급계획에 따라 2040년까지 8GW 이상 규모로 연료전지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회사는 자체 개발사업으로 수원, 안산, 전남 광주에서 4개의 연료전지 발전사업허가를 승인 받았으며, 올해 첫 시행되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 슬로건 공모전 수상자,
현장경영지원팀 강명빈 과장

함께 만들어 가는 환경경영의 실천

환경경영에 대한 관심이 향상됨에 따라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환경 의식 고취를 위해, 회사는 지난 4월 **환경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했다. 4월 10일부터 약 2주에 걸쳐서 응모를 받았고, 100여 건의 환경 슬로건이 접수되었다.

공정한 선정을 위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2차까지 심사가 진행되었고, '현장의 환경경영을 강화하고 환경경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가'에 기준을 두어 심사했다.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현장경영지원팀의 강명빈 과장의 '우리는 대우건설의 이름으로 친환경 녹색지도를 만듭니다' 슬로건이 선정되었는데, 이는 지도에 표시되는 모든 시공물 건설에 있어 환경경영의 실천을 통해 녹색지도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슬로건은 현장환경 방침 표준 양식으로 바로콘에 게시함과 함께 현수막으로 제작되어 현장에 비치할 예정이다.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기술

회사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왔다. 먼저 **DBS(Daewoo Biogas System) 공법**은 하수 슬러지, 축산분뇨, 음식물 쓰레기 등 버려지는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원인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해당 공법은 대구광역시 음식물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과 진주시 음식물 폐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장수군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등 국내외 현장에 적용되었으며, 이탈리아 테크노플루이드사와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에 대한 기술 수출협약 체결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DBS 공법은 국내 첫 상용화 발전 플랜트 시스템으로 친환경, 고효율, 경제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 과학기술 개발 및 사업화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2009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에 선정된 바 있다.

회사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환경기술을 개발해 환경기술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수도처리 분야에서 1997년 생물학적 질소·인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인 **DNR(Daewoo Nutrient Removal) 공법**을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대규모 하수처리장에 적용했다. DNR 공법은 기존의 하수처리장에 적용할 경우, 구조물 변경이 거의 없어 즉각 적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우수한 처리 효율을 보이고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하수처리 기술임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하수처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막 분리 공정과 생물반응조를 결합한 **DMBR (DaewooMembrane Bio-Reactor) 공법**을 개발하여 2005년 5월 환경부 환경신기술을 획득했다. 또한 2022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환경기술개발 30년의 결실'에서 DNR 공법과 DMBR 공법이 대표 기술 30선에 오르기도 했다.

YEOSU HUCHEMS 6NA 2MNB PJ

여수 휴켄스 6NA 2MNB PJ

회사는 정밀화학 분야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여수 휴켄스 6NA 2MNB PJ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TKG 휴켄스 공장 부지에 희질산 40만 톤, 모노니트로벤젠 30만 톤을 생산하는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 EPC 프로젝트로, 회사는 이번 PJ를 통해 앞으로 정밀화학 플랜트 분야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하는데 굳건한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1 신규 공장 설립에 따라 추가로 건설 중인 냉각탑
2 모노니트로벤젠 신규공장의 주유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철골 공사가 한창이다.



1 회질산 저장 탱크 4기가 건설 중이다.
2 모노니트로벤젠 저장 탱크의 구조물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밀화학 분야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다

전라남도 여수시 삼일동 일대. 이곳에 국내 최대 규모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있다. 이른바 여수국가산업단지, 이 단지 내에서도 TKG 휴켄스의 입지는 남다르다. TKG 휴켄스는 연간 230만 톤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정밀화학 핵심소재 전문기업으로, 국내 정밀화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회사는 이 TKG 휴켄스 공장 부지에 희질산(NA, 68%) 40만 톤을 생산하는 신규 6공장과 모노니트로벤젠(MNB) 30만 톤을 생산하는 신규 2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TKG 휴켄스는 이번 신규 희질산 공장 건설을 통해 제품 생산량이 연간 300만 톤 이상으로 확대되어 아시아 최대 질산 생산자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PJ는 휴켄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밀화학 분야 첫 진출이라는 점이 그렇고, 나아가 이번 PJ를 통해 고압,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 경험을 살려 향후 다양한 석유화학 분야에서 EPC Player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션, 275톤 흡수탑을 세워라

이번 현장에서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 마치 하늘로 쏘아 올려질 것 같은 로켓을 닮은, 무려 약 60미터 크기를 자랑하는 '흡수탑'이다.

“우리 현장의 상징적인 설비로 흡수탑(326-N-601, 5.5mID × 56.9mH × 275톤)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기술제휴사인 TKIS(Elimetal 제작)에서 공급하였으며 해상 및 육상 운송을 통해 우리 현장에 반입되었습니다. 기존 프로젝트에서는 본 설비가 2 Pieces로 분리 제작되어 상대적으로 운반 및 설치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우리 현장은 1 Piece로 제작되어 운송 및 설치에 많은 검토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설비 운송이 원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작 사양서 검토, 운송 및 설치를 위한 사항을 도면에 미리 반영하여 해상과 육상 운송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흡수탑의 운송은 마산항으로 입항된 설비를 다시 바지선을 이용해 여수 일반부두로 옮기고, 부두부터 현장까지 육상운송을 진행하는 등 총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육상 운송에 애로 사항이 컸다. “운송은 교통이 드문 야간시간을 이용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도로 점용 허가, Bridge 하부 보강, 운송에 간섭되는 Pipe Rack 및 교통 시설의 임시 제거와 복구, 차량 통제, 현장 환경 조성 등을 잘 수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안전한 운송에 따르는 사전 검토 사항 및 준비 업무가 많았습니다만 무엇보다 우리 직원 모두의 적극적인 지원이 현장의 기념적인 흡수탑을 운송·반입하고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었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희질산 흡수탑에 이어
신규 흡수탑이 설치된 모습



모노니트로벤젠 신규 공장 탑승에서 희질산 흡수탑을 배경으로 나란히 선 현장 직원들



을지로 본사,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인 설계팀과 구매관리팀 직원들

공장 건설의 최대 난관이었던 흡수탑이 성공적으로 설치된 후, 현장은 계획대로 순항 중이다. 현재 질산 공장 철골공사 및 컴프레서 주요기기, 질산 저장 탱크, 냉각탑 구조물 공사가 한창이며 모노니트로벤젠 공장 주요기기 설치를 위한 철골 공사 및 모노니트로벤젠 저장 탱크, 폐수처리 설비 구조물 공사도 동시 진행되고 있다.

“8월까지 열교환기, 리액터, 베셀, 펌프 등 주요 기자재 설치 완료하고 11월 예비 시운전을 통해 기계적 준공 후, 12월 종합 시운전 예정입니다.” 12월 한 달간 종합 시운전이 완료되면, 내년 1월 초부터 상업 운전이 시작될 예정이다.

EPC 사의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다

이번 현장은 회사가 설계, 구매, 시공을 모두 단독으로 수행하는 EPC 프로젝트다.

먼저 설계팀은 이번 프로젝트만의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일부 설치되는 기기, 공장 배치 등의 차이가 있지만 신규 공장의 주요 공정 및 공장 구성은 현재 발주처에서 운용 중인 공장과 유사합니다. 신규 공장도 기존 공장과 동일한 Licenser의 기술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발주처에서 제공한 기존 공장의 자료를 활용하여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발주처에서 기존 공장들을 운영하며 체득한 개선사항을 이번 신규 공장에서 요청하면서 상당부분 새롭게 개선된 설계가 진행된 면도 있습니다.”

설계팀이 이번 PJ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일정 준수’였는데, 이는 거의 도전에 가까운 미션이었다고 한다. “이번 PJ는 20개월의 공기, 10개월의 설계라는 아주 타이트한 일정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적기에 구매,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준수를 최우선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설계 인원이 투입되었고 부족한 자료는 발주처, Licenser와 협의하고 기존 공장 도서들을 활용하면서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짧은 공기는 구매관리팀에도 빠른 손발을 요구했다. “현장에 필요한 기자재도 빠른 시간 안에 납품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랜트에 설치되는 대다수의 기자재는 주문생산 사양의 제품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새벽 배송이나 익일 택배 등 편리한 구매시스템에 익숙하지만, 기자재는 제작사양 결정과 업체 선정, 제작, 품질검사에만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소요되므로 제때 현장에 자재가 반입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초기부터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PJ에는 조금 더 특별한 기자재가 요구되었다. “이번 PJ에는 부식성이 강한 질산 생산 및 황산 처리 공정을 위한 특수 재질의 기자재가 다수 적용되었습니다. 많은 특수 자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질산등급 스테인리스강(SS310L NAG) 재질이 적용된 열교환기, 황산 처리 공정이 적용된 내부 유리

코팅 설비 및 진공 시스템기자재가 가장 기억이 납니다.”

힘준한 산들을 넘어서게 하는 힘

현장에 흡수탑 설치라는 큰 산이 있었다면, 구매관리팀과 설계팀에게도 넘어야 할 산이 여럿 있었다. 먼저 구매팀에 닥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시련이다. “도급계약 체결 직전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철강 제품의 가격과 납기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연쇄적으로 자재 공급업체들이 가격과 납기를 확정하기 어려워 견적 제출을 유보하거나, 납기를 2배로 증가시키기도 했습니다. 적기 준공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업체들을 설득해 어렵게 견적을 받고 현장과 본사의 협업을 통해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주요 기자재의 발주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발주가 나간 이후에는 태풍이라는 변수가 붙어닥쳤다. “태풍 힌남노에 의해 국내 스테인리스 철강재의 유일한 공급원인 포스코 포항공장이 침수되고, 그 복구가 늦어지면서 철판 공급이 수개월 지연될 위기도 있었고, 납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원소재 수급 지연을 이유로 해외제조사로부터 수개월의 납품 지연 통보를 받았지만 조달본부와 협업하여 난관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팀원 모두가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덕분에 이제는 기자재들이 현장에 속속 도착하여 설치되고 있습니다.”

설계팀 역시 돌파해야 할 난관이 있었는데, PJ 초기 설계협력업체와의 의견 차이가 그것이다. “당초 설계협력업체를 통해 종합설계외주의 형태로 상세 설계를 진행하고 회사에서는 각 공종별 종합적인 검토, 관리 및 대 발주처, Licenser 업무를 수행하는 계획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설계협력업체와의 협업 과정에서 업무방식의 다름으로 인해 PJ 초기부터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업무 방식부터 의사결정 방법의 차이, 급기야 업체에서 우리 회사 시스템 사용을 거부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촉박한 PJ 일정에도 불구하고 설계협력업체의 품질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계획보다 많은 설계 인원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는 진행되어 설계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팀과 구매관리팀, 그리고 현장까지. 각각이 마주했던 산들을 넘어서게 했던 원동력은, 각각의 힘이 아니라 ‘같이의 힘’이었다는 것. 여수 휴켄스 6NA 2MNB PJ는 그 같이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할 수 있었던 현장이라는 점에서도 오래 기억될 것이다.



왼쪽의 QR 코드를 스캔해서
여수 휴켄스 6NA 2MNB PJ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COMMENT

EPC 주역들의 바람과 다짐



PM 심병건 부장

올해 11월 기계적 준공을 완료하고 12월 시운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밀화학 분야 첫 진출로, 성공적인 PJ 준공을 통해 향후 대우건설이 EPC 선두 주자로 다양한 정밀화학 분야에 진출하는 데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장소장 김지훈 부장

근로자분들과의 소통 및 배려를 통해 준공 시까지 무재해를 달성할 것이며, 적기 준공을 위해 남은 7개월 동안 대우건설 전 직원 및 협력업체가 일심동체 되어 기계적 준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MNB EM 이훈녕 부장
설계관리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과 본사의 협업, 유관팀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PJ 준공을 통해 석유화학 분야의 멀티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6NA EM 정병호 차장
설계관리팀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PJ에 몸담은 전 직원이 노력하여 이제 PJ 마무리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합심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PM 이지는 차장
플랜트구매팀

최고의 역량을 보여주신 팀원들과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신 유관부서에 감사드립니다. 잔여자재의 적기납품으로 지원에 보답하고 성공적으로 PJ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멀고도 가까운 나라 베트남

가고 싶은 해외 여행지로 늘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드는 나라. 그만큼 남다른 친숙함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베트남. 여행지가 아니라 해외 현장 근무지로서 베트남은 어떤 곳일까. 1999년부터 현재까지, 각기 다른 시간과 현장에서 몸소 베트남을 경험해 본 직원들의 리얼 스토리를 들어보자.



EPISODE
12

염갑진 부장 | 공공사업2팀

베트남 DCL건설지사

베트남에는 희귀 보양식으로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박세흠 사장님이 베트남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베트남 대하법인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는 현지 파트너사 하넬(Hanel: Hanoi Electronic Crop) 대표가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들을 따라 방문한 식당에는 고슴도치, 천갑산, 자라 등 야생동물들이 케이지 안에 들어있었어요. 자리에 앉으니 살아있는 고슴도치를 가져와 바로 해체를 시작하더군요. 바로 잡은 고슴도치 피와 선지를 보양식이라며 거듭 권하는 통에 아주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해외 생활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곤란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 싫은 티를 내지 않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참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시기는 IMF 사태가 터진 직후로, 하노이에 있던 국내 우수 업체들도 몸집 줄이기에 급급했습니다. LG, 삼성 지사들이 하노이에서 철수를 시작했는데, 대우만이 곳곳이 지키고 남아 있었죠. 그때부터 함께했던 당 관료들의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대우에 대한 인식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공띠(회사를 가리키는 말) 대우’, ‘책산(호텔을 가리키는 말) 대우’ 하면 당시 아이들도 엄지를 세우며 최고라고 할 정도로 대우에 대한 명성이 엄청났습니다.

1999년은 우리 회사가 워크아웃을 목전에 뒀던 시기라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현지 정부 발주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입찰보증서가 필요한데, 주거래 은행을 찾아가 요청하니 우리



회사의 그룹 해체 상황을 언급하며 까다로운 조건을 걸더라고요. 보증서 발급을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끝끝내 우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아국 주거래 은행이 우리 상황을 악점 잡은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서러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이후에도 은행 거래 등에 높은 수수료를 비롯 부당한 요구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결국 저도 은행이 입점해 있던 대하비즈니스센터 사무실을 빼라며 맞대응했던 기억이 나네요. 센터의 지리적 이점과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한 은행 측이 결국 자존심을 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설움을 씻어낼 수는 없었지만, 약간은 통쾌했던 나만의 복수였습니다.

대하 비즈니스 센터 전경



2007년, 중동에서의 7년 해외 근무를 마치고 본사 생활 1년 반 만에 다시 베트남 근무를 명 받았습니다. 중동보다 훨씬 가까운 베트남이라는 것을 위안 삼아 하노이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생각도 외모도 왠지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 같아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당시 대우그룹은 한국업체 중 가장 먼저 베트남에 진출해 대우 계열사가 많은 사업을 진행했었고 그룹 분리 이후에도 수개의 대형 투자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회사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막 인수된 상태였는데,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박삼구 회장님께서 베트남 사업확장 열정이 강하셔서 제가 부담한 직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하노이를 방문하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은 2008년 한국업체 최초로 Nhon Trach 2 CCPP 발전소를 EPC로 수주한 것이었어요. 당사와 일본 Sumitomo 상사, 베트남 Posilama 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2008년도 11월에 낙찰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계약 서명일, 저는 계약 서명식 참석차 서울에서 출발한 당시 조응수 본부장님과 정태영 상무님을 호치민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주처로부터 계약 취소 전화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서명식 행사를 불과 4시간 정도 앞두고 벌어진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이후에도 공산당 1당 무소불위 권력 집중, 신뢰하기 힘든 공무원들의 언행 등을 경험하면서 베트남에 대한 저의 따뜻한 마음이 식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 때마다 가족들의 사진을 보고, 인터넷으로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시금 느끼게 된 가족의 소중함이었습니니다. 사랑하는 집사람과 아이들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한 함께 동고동락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했던 동료들이 있었기에 베트남에서의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어요. 돌아보면 베트남에서의 근무는 성취감보다 아쉬움이 남지만, 저의 아쉬움은 이후 다른 직원들의 성공적인 베트남 사업 확대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묵묵히 이겨내고 어느덧 결실을 보고 있는 THT 신도시 사업을 보면서 독심 있는 대우건설의 지속적인 성공을 기대해 봅니다. 대우건설 파이팅!

2008



2012

하노이 지사 전경



하노이지사

대리 2년 차이자 결혼 2년 차이던 2012년 신라의 나이지리아 지사 발령과 함께 해외 근무를 자원해 하노이 지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해외지사 부임 전 6년간 해외 영업을 해 왔었지만, 베트남 프로젝트는 담당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다행히 베트남은 한국 교민들도 워낙 많고 한국과 같은 유교 문화권이라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일상생활이나 현지 발주처/기업과 소통할 때 영어가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생존을 위해 어느 정도는 베트남어를 배워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성조가 들어간 언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저에게 6성조는 아무리 들어도 구별이 쉽지 않았습니다.

부임 초반에는 마트 구경이 재미있어 많이 다니기도 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항상 머리까지 달린 닭고기를 팔더라고요.



사람들이 머리가 없으면 가게 주인에게 따지거나, 현지 직원들과 닭고기를 먹을 때도 항상 머리를 서로 먼저 먹으려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또 해외 영업을 하면서 자라 피와 쓸개즙, 타조, 비둘기 등 한국에서 먹기 힘든 다양한 음식을 먹어 보게 되었습니다.

대우건설은 한국과 베트남이 정식 수교를 맺은 1992년보다 앞선 1990년 베트남에 진출했는데요. 베트남에 근무하면서 어느 지역에 가도 '대우'라는 이름을 아는 경우가 많아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었어요. 또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허허벌판 농지였던 곳이 10년이 지난 지금 세련된 신도시로 탈바꿈한 것을 보니 독심 있는 부동산 개발의 놀라운 힘을 느낍니다. 저의 근무 기간 3년 내내 함께 해준 현지 직원 타오도 생각나네요. 제가 귀임할 때 제 지갑이 남아 보인다고 장지갑을 선물해 주었는데요. 아이 키우기에도 빠듯한 월급을 쪼개 저에게 귀한 선물을 준 것이 고마워 한국에 돌아와서도 오랜 기간 잘 사용했습니다. 신혼부부 시절 서로 떨어져 근무했지만 고맙게도 보이스톡이 있어 매일 불편함 없이 통화할 수 있었어요. 또 신랑과 같은 기간에 해외 근무를 한 덕분에 2주일씩 미국, 스페인 등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여행의 추억을 많이 갖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2018

EPISODE

15

김동현 과장 | 주택건축사업본부

베트남 B3CC1 복합개발현장

2018년 베트남 부임 초기, 국내 현장에서 일하던 때의 속도와 업무 성과를 기대했지만 그건 저의 큰 오산이었습니다. 워낙 빨리빨리 해야 하는 한국 사람과 딱 본인의 업무까지만 하려는 베트남 사람들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어요. 가끔 큰 소리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도 생기고, 제가 직접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한국 직원들은 무섭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만 불편했던 게 아니고, 베트남 직원들도 불편했던 거죠. 이후 무서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매주 수요일 베트남 직원들과 축구를 같이 했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다 보니 직원들과 대화를 하게 되고, 생각보다 문화나 특성이 비슷한 점도 많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제 인생 중 5년이나 보낸 이곳이 각별한 나라라 여기고 있습니다.** 가끔은 베트남 직원이 더 편하다고 생각될 정도이니까요.

베트남은 오토바이의 나라로 유명한데요. 동남아 중에서도 유독 교통수단으로서 오토바이의 비중이 높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이동의 한계가 있고, 자동차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하네요. 특히 라이벌인 태국과의 축구 국가대항전에서 이기는 날이면 하노이 시내 곳곳이 쏟아져 나온 오토바이로 이동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2019년 킹스컵 결승으로 기억되는데, 같이 귀가하던 김선창 차장은 기다리다 지쳐 집에 걸어갔답니다. 역주행하거나 인도를 넘나드는 오토바이를 보고 있으면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정해진 흐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해요. 너무 덥고 길거리도 복잡한 베트남 생활이 불편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베트남엔 보기보다 구경할 게 많습니다. 물론 유명 관광지처럼 화려하고 세련된 건물들은 아니지만, 골목 구석구석 숨겨진 카페나 상점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지금도 가끔 주말이면 시내 여기저기를 구경하면서 사진 찍는 재미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여행지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베트남에서 지냈던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습니다.



EPISODE

16

김택현 대리 | 베트남 푸꾸옥주거개발현장, 하노이복합개발현장(겸)

푸꾸옥 현장에 처음 출근했던 1년여 전이 생각나네요. 관광지로 유명해 인프라가 좋을 줄 알았는데 다 부서져 가는 길을 지나 현장에 도착했을 땐 정말 놀랐습니다. 또, 처음엔 베트남 식문화도 생소했어요. 동물 ‘피’를 반찬으로 즐겨 먹는 모습에 당황하기도 했는데요. 현장 주위에 식당이 없어 길거리 시장에서 식재료를 사와 현지 직원들과 다같이 베트남식으로 점심을 먹었는데, “MR. Kim, 이건 닭 피로 만든 젤리야 먹어봐” 하고 권할 때마다 제 속은 타들어 갔습니다. 물론 한국과 베트남 사람들의 공통점도 있었어요. 바로 축구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이었죠. 어디서든 박항서를 외치면 굉장히 좋아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푸꾸옥 현장에서 현장 직원들, 발주처 직원들이 같이 어울려 단합 축구를 하곤 했는데 베트남 친구들은 정말 축구를 잘하더라고요. 저는 실력이 안 되어서 결국 후보로 밀려났습니다. 축구를 하고 다음날 아침 먹는 오징어 쌀국수(푸꾸옥 전통 쌀국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정말 추천하는 푸꾸옥 대표 메뉴입니다.

현재 푸꾸옥섬에서는 유일한 국내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샵 하우스와 랜드마크 조경 ‘아이스 정글’을 시공 중인데요. 코라다이스(코리아 + 파라다이스) 프로젝트로도 불리는 이곳에 한국인 거리가 조성될 거라고 해요. 요즘 관광지로 핫하게 떠오르는 푸꾸옥에 한국인 거리가 생기고 우리 대우건설이 시공을 한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시간이 지나고 푸꾸옥을 방문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를 것만 같아요. 푸꾸옥 현장에 있을 땐 조남일 소장과 정운우 대리와 함께 가족처럼 끈끈하게 지냈습니다. 정운우 대리 생일날 해변가 로컬 해산물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 왁자지껄한 현지 분위기에 파도 소리를 들으며 했던 식사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휴일이면 간식과 함께 드라마 정주행을 하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어요. 한국에선 잘 보지 않았던 드라마인데 왜 이렇게 재미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가족은 언제나 그립습니다. 이제 두 살인 제 딸 첫돌 때 옆에 있어 주지 못해 아직도 마음이 아프네요... 서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베트남 푸꾸옥주거개발현장



2022

더 크고 깊은 우물을 파다

GTX-A1공구현장 임진혁 부장



책 <신 살의 직장인>에서는 50이라는 나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신 살은 새롭게 배워야 할 게 많은 나이다.” 1998년 입사 후 지금까지 토목이라는 한 우물을 파온 임진혁 부장은,
신 살을 맞이한 지금, 각오가 남다르다. “지금까지 저의 경험을 한 우물을 파왔다고 표현한다면,
앞으로는 더욱 크고 깊은 우물을 파 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의 첫 50

대학 졸업 후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배들에게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학 생활과 사회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곤 합니다. “대학 생활까지는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에서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신 살은 마치 대학생에서 새내기 직장인이 되었을 때만큼의 변화가 있는 시기라고 느낍니다.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변화가 찾아오고,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도 알려줄 수 없지요. 제가 신입사원들에게 말했듯, 신 살 역시 스스로 노력하고 배우며 해결해 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변화’라는 게 낯설고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토목견적팀의 팀장이라는 타이틀이 달렸을 때입니다. 그 순간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어제까지 토목견적팀에서 열심히 일했고 오늘도 토목견적팀 소속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만큼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곳 지하에 터널이 생긴다면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누군가는 불편을 호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모든 것을 잘 아울러서 건설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이를 통해 PJ를 무사히 준공했을 때, 그때의 성취감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또한 공사 기간이 길다는 것은 토목 노선 공사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양면이 있듯 한 조직(현장)에 오래 일한다는 것 또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현장, 이 업무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지만, 무거운 책임감도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현장들에 많이 몸담았는데, 그만큼 많은 자신감을 쌓아 온 셈이지요. 한편으로 장시간 유사한 현장에 있다 보면 다양한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잃게 됩니다. 이 점은 저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전 후배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조직(현장)에 있기에 가장 적절한 기간은 3~5년이라고, 그래야만 깊이 있는 역량과 다양한 역량을 고루 갖출 수 있다고.

ABOUT 임진혁 부장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법

소통은 상대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직원들의 특성, 성향에 맞춘 개개인 간의 소통에 노력하고 있다. 어떤 직원과는 티타임을 가지며 대화를 즐기기도 하고, 어떤 직원과는 결재, 보고 시에 간단하지만 일상적인 소통을 하기도 한다. '고생했으니 오늘 회식하자' 이런 건 양방향향이 아닌 일방적인 소통법이라고 생각한다.

슬럼프 극복법

좌절하는 순간이 있기도 했다. '이제는 사표를 낼 때가 됐다' 하는 순간 말이다. 그런데 대우건설과는 운명인 건지..., 사표를 내려고 마음먹을 때마다 진행하고 있는 업무, PJ가 발목을 잡았다. '그래, 이거까지는 마무리하자', '그래도 여기까지는 내가 끝내야지' 하는 마음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존버'하게 되었는데 책임감이라는 게 지금의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원동력이 아닌가 싶다.

좋은 아빠, 남편이 되기 위해

현장에서 숙소 생활을 하고 있다. 휴무일이 되어도 쉼길 것들이 많아 온전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한 달에 하루 정도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그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아내가 하는 이야기는 최대한 끊지 않고 들어주기, 공감해 주기. 아이들에게는 그동안 내가 겪은 경험, 감정들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 GTX-A

건설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GTX라는 단어는 아마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GTX-A노선은 파주 운정역을 출발하여 동탄역을 연결하는 총 80km 연장의 수도권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개통 시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 구간은 18분, 삼성역까지 23분, 동탄역까지 43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기 신도시(일산, 분당), 2기 신도시(운정, 판교, 동탄), 3기 신도시(창릉)에서 서울 중심가(서울역, 삼성역, 수서역)까지의 접근성, 이동시간 단축 효과로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노선 중 가장 복잡한 파주 운정역과 일산 킨텍스역 구간을 각각 1공구와 2공구가 맡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구간 대심도 터널로 계획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1, 2공구는 터널 굴착을 완료하고 구조물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1공구에는 GTX-A노선 중 유일한 지상구간인 차량기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2024년 하반기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으로 GTX사업의 조속 개통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1공구는 안전, 품질, 환경 등 모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적기 공사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후.문.선.답

‘후배가 직접 질문하고 선배가 바로 대답한다’.
평소 후배 직원들이 선배 임진혁 부장에게 궁금했던 점을 물었고, 진솔한 답변이 돌아왔다.

Q1

관심도가 높은 현장에 현장소장으로 처음 보직을 받으셔서 부담감이 크실 텐데?

그 부담감을 아직도 극복하는 중이다.(웃음)
무엇보다 동료들을 믿고 같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Q2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꼽는다면?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밸런스를 유지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발견하고 소중히 아끼는 것이 필요하다.

Q3

회사생활에서 중간급 관리자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역량은?

관리자는 나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을 아울러서 업무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독려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Q4

오랜 기간 회사생활 하시면서 여러 추억들이 있으실 텐데, 가장 힘들었던 PJ가 있는지?

특정 순간이 떠오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배가, 나의 동료가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남은 인원들이 오롯이 남은 문제 상황을 해결해야만 할 때는 이래서 사회생활이 힘들구나 느끼게 된다.

Q5

본사와 현장을 두루 경험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각각의 장단점은?

본사와 현장은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절실히 느꼈다. 계속해서 본사와 현장을 오가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상호 보완하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Q6

GTX-A1공구현장 직원들에게 바라는 점, 혹은 하고 싶은 말은?

이번 현장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일은 힘들어도 서로 웃으며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자’라는 게 목표였다. 이러한 목표는 나 하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장 직원들도 나의 생각에 공감해주고 같이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

Q7

파주 지역을 잘 모르는 분께 추천하고 싶은 맛집은?

현장사무실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운정신도시가 한창개발 중이지만, 현장 사무실 근처에는 사실 볼만한 데가 없다. 하지만 현장 인근을 방문하신다면 방문자의 니즈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대접하도록 하겠다.

Q8

공정, 원가, 안전, 품질 중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현장은 무조건 안전이다.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고도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실제로는 약 3개월가량 공사가 지연이 된다. 이는 공정, 원가와도 관련이 있고 직원 사기와 밀접한 부분이라 품질과도 맞닿아 있다. 게다가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존엄하므로.

Q9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이었던 순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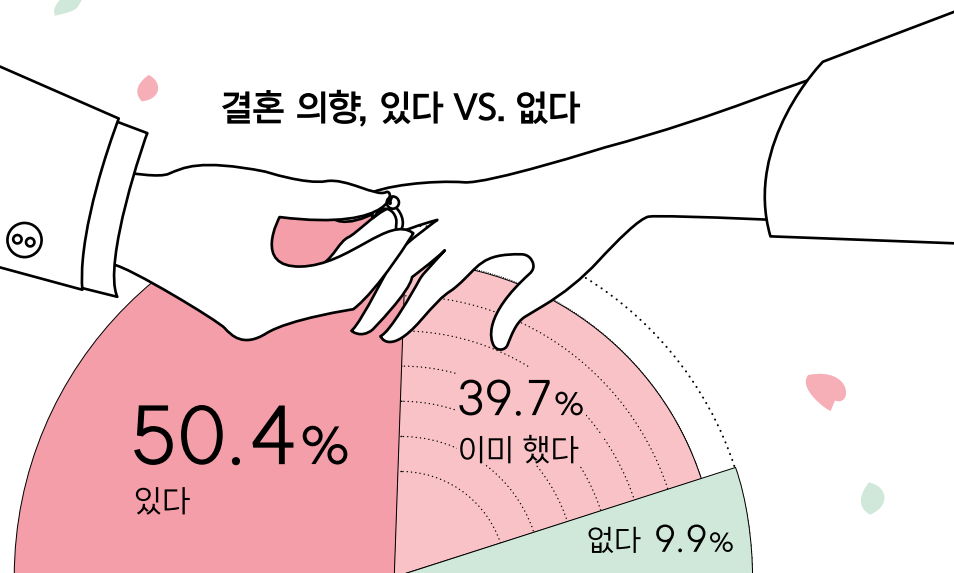
매 순간 그랬는데, 그중 꼽으라면 오리수원철도3공구현장 때 같다. 공사 여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현장이었는데 직원들 모두가 다 열정적이었다. 힘든 상황을 합심하여 극복해 나갈 때마다 뿌듯함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그게 또다시 동력이 되어 더 열정적으로 불사르게 했던 기억이다.

결혼, 동상이몽

가정의 달을 맞아 이번 호에서는 '결혼'에 대한 MZ세대 직원들의 생각을 공유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국내 혼인 건수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고 하는데, 과연 회사 2030 직원들은 결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남녀 비율은 약 90:10으로, 남직원의 의견이 다수 반영되었습니다.

결혼 의향, 있다 VS. 없다



Q1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는?

38.9%

가족이라는 제도에
업매이고 싶지 않아서

결혼할 만한 상대가 없어서 27.8%
아직 결혼 자금이 준비가 덜 돼서 27.8%
현재의 일, 삶에 열중하고 싶어서 5.6%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0%

Q2 1인 가구의 삶이 갖는 최고의 장점은?

50%

간섭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

나 자신을 위한 투자(지출) 가능 38.9%
효율적인 시간 활용 5.6%
부양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움 5.6%

Q3 비혼 동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가?

55.6%

그렇다

아니다 22.2%
매우 그렇다 11.1%
아직 모르겠다 11.1%
매우 아니다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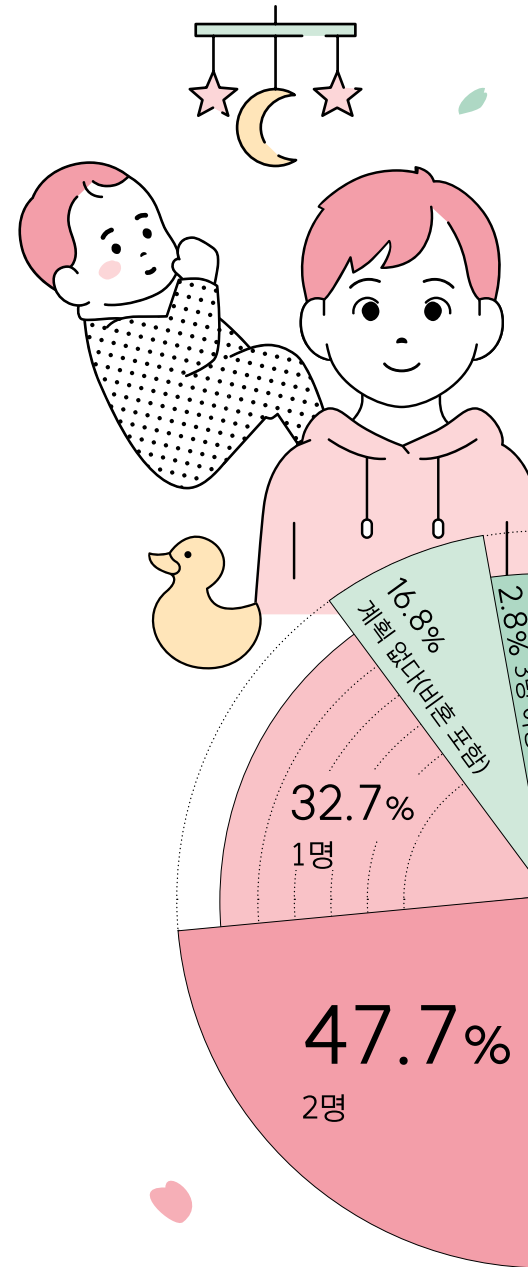
Q4 맞벌이에 대한 생각은?

50.4% 하는 것이 좋다

반드시 해야 한다 18.9%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18.9%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7%



향후 자녀 계획은?



Q1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는?

33.3%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유로운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3.3%
나의 삶, 커리어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20%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13.3%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10%

Q2 일과 육아의 병행, 가장 어려운 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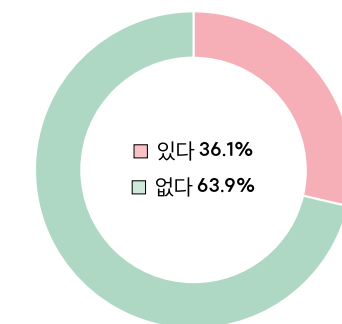
43.9%

자기 계발이나 재충전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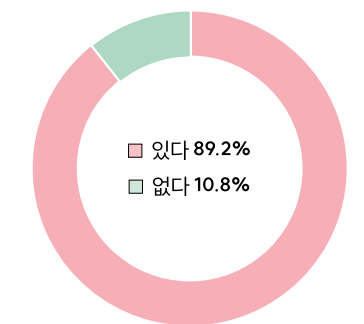
육아에만 전념하지 못한다는 마음의 짐 26.8%
무엇보다 체력적으로 힘들다 24.4%
아이 관련 일로 업무 집중력이 떨어질 때 4.9%



Q3 육아 고충으로 퇴사를 고민해 본 적 있다?



Q4 육아 휴직을 고민해 본 적 있다?



Q5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40%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경력 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22.9%
진급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20%
상사,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17.1%



Q6 육아 관련 회사의 복리후생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37.5% 자녀 양육비 지원

육아 휴직제도 26.8%
유연 근무제 25%
직장 어린이집 8.9%
출산 축하 선물 1.8%

WIND & WISH

진재호 과장 가족을 실은 요트가 바람(Wind)을 타고 부산 앞바다로 나아간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아빠의 바람(Wish)이 파란 물결 위에서
반짝반짝 빛난다.

포항영덕고속도로3공구현장
진재호 과장 가족의

프라이빗 요트 투어



햇살은 눈부시게 반짝거리고,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의기양양하다. 지난 4월 30일 일요일, 어제까지 온종일 비를 뿌리던 부산 하늘이 거짓말처럼 청명하게 갠 얼굴로 여행객을 반긴다. 수영구 요트경기장도 황금연휴를 맞아 모처럼 활기를 띈다. 요트 투어를 온 사람들은 계류지에 정박해 있는 흰 요트들과 그 너머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는 것으로 마음에 일렁이는 설렘을 느낀다.

오늘 프라이빗 요트 투어의 참가자는 포항영덕고속도로 3공구현장의 진재호 과장 가족이다. 현장 근무로 인해 10년 동안 떨어져 지내 왔다는 진 과장 가족을 부산으로 초대했다.

“육아에 지쳐 있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재호 과장은 여행 마니아라고 한다. “평소 가족과 함께 여행하기를 좋아해요. 여행 후에는 개인 블로그에 글과 사진을 올리고 추억하기를 좋아합니다.” 어쩌면 주말 가족이기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 자주 떠났을 여행. “격주로 휴무를 가지고 있는데, 매주 어딘가를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대구, 경북 주변에 있는 놀거리와 관광지들(키즈카페, 점핑장, 롤러장, 체험장, 고분, 새마을기념관 등)을 자주 찾는 편입니다. 최근에 갔던 딸기 체험도 기억에 많이 남네요.”



진재호 과장 가족은 수상 레저 경험도 꽤 있는 편이다. “아이들은 유람선, 제트스키, 스노클링, 섬 투어 등의 경험이 있어요. 작은 방파제에서 낚시를 한 적도 있는데, 아이들이 작은 물고기만 잡아도 아주 행복해하더군요.”

그래서였을까. 9살 큰아들과 6살 작은아들은 난생처음 타 보는 요트가 낯설기도 할 텐데, 겁 없이 성큼 요트에 올라탄다. 그러고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요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구경하느라 잔뜩 신이 났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가족이 탑승한 요트는 2023년형 최신식 카타마란 요트다. 고급스러운 데크는 물론이고 아늑한 소파와 테이블이 있는 살롱, 2층에 별도 조성된 조타실, 지하 화장실까지 갖추고 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진재호 과장 가족만이 이 럭셔리 요트의 오롯한 주인이다.

스릴과 힐링, 다 경험할 수 있는 요트의 진짜 매력

요트 여기저기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는 사이, 엔진음이 들리기 시작한다. 진 과장과 용감한 큰아들은 데크에 나란히 앉아 항해를 즐길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 아내와 작은아들은 선미 쪽에 마련된 소파에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갖기로 한다.

오늘 코스는 요트경기장에서 출발해 광안리 해수욕장, 광안대교, 동백섬을 지나 마린시티를 경유해 다시 요트경기장으로 돌아오는 원점회귀 코스다. 소요 시간은 1시간 정도. 해안선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부산의 넓은 바다를 즐기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드디어 요트가 물살을 가르기 시작한다. 제법 세게 부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야 해서 속력을 더하자 요트가 수면 위를 통통 튀어 오르며 전진한다. 성인들도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갈 속도인데, 큰아들은 그저 싱글벙글 웃으며 요트 세일링의 짜릿함을 즐기고 있다. 작은아들은 요트가 지나간 자리에 하얗게 부서지는 포말을 구경하고 있다.

광안리에 다다랐을 즈음 선체가 잠잠해지자, 아내와 작은아들도 데크로 자리를 옮긴다. 이제 네 가족이 나란히 한 줄로 앉아서 여유로운 힐링을 즐긴다. 이마에 닿는 햇살은 너그럽도록 따사롭고,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바닷바람은 달콤하게 시원하다.





요트의 진짜 매력은 어느 순간 찾아오는 평온함이다. 캠핑장에서 불멍을 즐기듯, 하늘과 바다를 그저 두 눈에 담는 것만으로도 시끄러웠던 머릿속이 고요해진다.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이내 입을 다물고 바람이 들려주는 노래를 가만히 듣는다. 물론 자동차로만 지나다니던 광안대교를 그 밑에서 가까이 본다거나 바다 한 가운데서 광안리해수욕장, 동백섬 등 부산의 명소를 감상하는 것도 오직 요트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어느새 요트가 선착장으로 되돌아온다. 충분한 것 같았던 1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만큼 아쉬움마저 남는다. 오늘의 이 1시간이 진재호 과장 가족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 진 과장은 “아내가 그동안 쌓였던 육아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아이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 같다”고 말한다. 아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준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오늘 이벤트를 열어준 회사에도 감사하다”는 감사 인사를 잊지 않는다.

문득 요트에 오르기 전 진재호 과장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넓은 바다만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접하지 못하는 요트 투어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아이들의 생각 주머니가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아빠의 바람처럼 두 아이들에게 오늘의 이 시간이 꼭 그런 경험이었길 바라본다.



왼쪽의 QR 코드를 스캔해서
요트 투어의 생생한 과정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IN OUR OWN TIME

추천! 가족 나들이 명소

화창한 봄 날씨가 절정에 이르는 5월과 6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연휴가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온 가족이 함께 여행 가기 참 좋은 이때, 가족 나들이
장소를 찾고 있다면 회사가 시공한 이곳들을 주목해 보자.

세계 서퍼들이 찾는 또 다른 성지 웨이브파크



지난 2020년 10월, 시흥의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의 개장으로 우리나라도
사계절 서핑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1990년대 스키 인구가 워터파크로 이동하며,
호주, 하와이, 발리로 대표되던 서핑이 이제는 한국의 시흥 웨이브파크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 아시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웨이브파크'는 장마철과 한겨울에도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8초마다 좌우 2개씩,
시간당 천여 개의 파도를 만들어 내는 이곳은 이미 세계적으로 입소문을 타
해외 서퍼들까지 섭렵한 상태다. 시흥 웨이브 파크는 서핑뿐 아니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메인 시설인 서프존에서는 서퍼는
물론, 초급자를 위한 강습 및 키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워터파크인
미오코스타존은 파도풀과 키즈풀,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따뜻한
스파, 물 위에서 경험하는 에어바운스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어른들에게도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에게도 안성맞춤이다. 이 밖에도 수심 약 5미터의
스쿠버 다이빙존에서는 스쿠버 다이빙과 오픈워터 자격증 취득까지 가능하다.
하루만으로도 아쉽다면 프라이빗한 카라반에서 역동적인 워터파크의 기운과 함께
바다를 이웃 삼아 하룻밤을 보내는 것도 추천한다.



미식부터 야경까지, 완벽 복합문화공간

세빛섬

한강 반포대교 남단에 위치한 세빛섬은 독특한 외관이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다. 총 3개의 섬으로 전체가 유리로 둘러싸인 제1섬 가빛, 기하학적인 나선형이 돋보이는 제2섬 채빛, 친환경을 강조한 제3섬 솔빛은 저마다 다른 콘셉트로 지어졌다. 가빛은 '활짝 핀 꽃', 채빛은 '꽃봉오리', 솔빛 '꽃씨'를 상징한다.

세 섬 중 가장 규모가 큰 가빛은 다기능 종합 문화시설 공간이다. 만개한 꽃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3D 작업을 거쳐 알루미늄 커튼월로 시공되었으며, 내부에는 각종 국제 컨퍼런스와 전시회를 열 수 있는 컨벤션홀은 물론, 레스토랑, 루프탑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1천 7백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채빛은 '젊음'과 '축제'를 테마로 음식, 예술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다. 특히 바깥쪽 수상 정원은 LED 바닥 조명으로 꾸며져 밤에도 꽃밭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알루미늄 판넬 외부에 장식용 커튼월을 별도로 배치하여 외관의 아름다움이 극대화된 섬이기도 하다. 솔빛은 360도 한강뷰를 바라보며 다양한 와인을 경험할 수 있으며, 라이브 공연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야외 공연시설인 미디어아트 갤러리를 갖춘 예빛이 더해짐으로써 완벽한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면모를 완성했다. 반포 한강 지구에서 바라보는 세빛섬은 예술적인 외형으로 그 존재감을 발하고 있으며, 반포대교의 분수쇼와 야간 조명이 더해지는 저녁 시간대의 방문을 추천한다. 지난 4월, 이 세빛섬에서는 세계적인 명품브랜드인 루이 비통에서 역대급 패션쇼를 진행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숲속 팔각 야구장으로의 초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2016년 3월 첫선을 보인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는 국내 최초의 팔각형 구장으로 관중석에서 베이스까지 거리가 가까워 생동감 넘치는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좌석 배치도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 앞 사람에 의해 시야가 가려지는 일도 적은 관중 친화형 구장이다. 가족 단위 관람객이 늘면서 다양해진 팬층만큼 다양해진 관중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다.

수려한 주변 경관에 둘러싸인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는 야구를 관람하면서도 숲속 공원에 앉아 있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이는 구장의 특징인 팔각구조 때문인데, 2만 4,300석, 수용인원 2만 9,100명이라는 적지 않은 관중석을 확보하면서도 대구시민 모두를 야구장으로 초대하겠다는 열린 구장을 지향한 결과다. 야구장 상단 스탠드석의 돌출형 구조로 외야에서도 가까이 경기를 즐길 수 있고, 테이블석, 패밀리석과 소풍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잔디석에 샌드파크 등 이벤트석도 갖추고 있다. 더그아웃에 초근접한 좌석과 3루 내야 지정석이 매력적이며 외야패밀리석이 인기라고 하니 대구야구장을 방문한다면 참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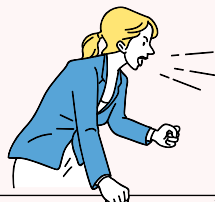


혹시 나도 카페인 중독?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모닝커피부터 점심 후 나른함을 깨우기 위한 한 잔, 회의나 미팅 때 으레 또 한 잔, 그리고 야근을 버티기 위해 마시는 커피까지, 직장인에게서는 무심코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커피를 습관처럼 마시고 있는 사이, 혹시 자신이 카페인 중독이진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



□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 쉽게 흥분하고 격양된다.



□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량이 늘었다.



□ 위장장애로 소화불량 등이 온다.



□ 두서없이 생각하고 말한다.



□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예민해진다.



□ 얼굴이 쉽게 상기되며 홍조를 띤다.

SELF TEST 카페인 중독 자가 테스트



하루 카페인 섭취량이 250mg(커피 2~3잔)
이상이면서 위의 12가지 신체 증상 중 5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카페인 중독을 의심할 수 있다.
*출처 미국정신의학회



□ 지칠 줄을 모른다.



□ 근육이 자주 뭉치고 쥐가 잘 난다.



□ 침착하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한다.



□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고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다.

직장인 A는 주말마다 두통에 시달린다. 원인은 평일 하루 2~3잔 마시던 커피를 주말에 덜 마시다 보니 두통이 몰려오는 것. 이러한 두통을 '카페인 금단성 두통', '카페인 두통'이라고 한다. 드물지만 평일 하루 1~2잔을 꾸준히 마신 사람에게도 금단증상은 나타날 수 있다. 금단증상은 두통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이 밖에도 피로, 산만함, 구역질, 졸음, 카페인 탐욕, 근육통, 우울하거나 예민한 증상이 함께 올 수 있다.

카페인에 길드는 우리의 뇌

이렇듯 우리 몸은 자신도 모르게 카페인에 중독되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왜 커피를 습관처럼 마시게 될까. 커피는 중추신경을 자극해 기분 좋게 하거나 인지능력과 전체적인 운동 수행 능력을 높인다. 흔히 알려진 각성효과도 카페인에 졸음을 일으키는 아데노신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신경을 자극해 일시적으로 암기력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카페인의 여러 효능을 의존한다. 하지만 보통 카페인 체내 반감기가 3시간에서 길어야 10시간이다. 아무리 기분 좋은 효과도 결국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카페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더 자주 더 많은 양의 카페인을 찾게 되고 결국 카페인 중독에 이른다. 카페인 중독증상은 카페인 섭취량 자체보다 개인이 가진 카페인 내성 정도와 관련이 크다. 카페인 민감증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만 마셔도 강력한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느낀다. 미량을 섭취해도 에스프레소 6잔을 마신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이유는 신체가 카페인을 천천히 대사하기 때문. 사람에 따라 증상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카페인 민감증에 따른 증상으로는 심장이 빨리 뛰거나 두통, 신경과민, 긴장이나 불안, 불면증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카페인 중독과 금단증상이 어른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카페인에 뇌에 작용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한다. 카페인에 한 번 학습이 된 뇌는 계속해서 카페인을 찾게 되고, 제어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계속해서 카페인 식품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평소 콜라나 초콜릿 우유 등을 많이 먹던 아이들이 섭취량을 줄이면 집중력이 떨어져 학습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수면시간이 짧고 수면 중 잠이 깨기도 쉬워 낮에는 졸음에 시달릴 수 있다.

하루에 적당한 카페인의 양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커피를 마셔야 안전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일일 섭취 기준량은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청소년과 어린이의 경우 체중 1kg당 카페인 2.5mg 이하이다. 우리가 편하게 타 먹는 인스턴트커피 1봉에는 약 30~80mg의 카페인이 들어 있고 커피전문점의 아메리카노 커피에는 약 160~300mg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커피전문점 커피는 2~3잔이면 하루 허용량을 훌쩍 넘는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이 카페인 민감도가 높은 사람일 경우 섭취량은 더 적어야 한다. 커피 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가운데에도 카페인이 든 것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섭취해야 한다.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의약품에도 공통적으로 카페인이 들어 있고,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초콜릿 우유와 커피 우유, 콜라 등 음료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다. 함량을 꼭 확인해서 섭취하도록 하자.



카페인 중독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6가지 방법

- | | | | | | |
|--|---|---|--|---|---|
| ①
천천히 줄인다
단번에 줄이겠다는 생각은 과욕이다. 금단증상을 겪을 수 있다. 그보다는 1~2주에 걸쳐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 ②
대체 음료를 찾는다
커피를 대체할 다른 음료를 마신다.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를 추천한다. 디카페인 커피도 카페인이 들어있지만, 섭취량을 줄여갈 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 ③
물을 많이 마신다
찬물이나 뜨거운 물이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손에 물을 들고 있으면 커피가 든 머그잔이 없을 때 느끼는 허전함도 줄어줄 것이다. | ④
티타임 대신 산책이나 운동을 한다
식사 후에 티타임을 갖는 대신 산책을 가거나 운동을 해보자. 산책과 운동은 카페인만 한 자극제이자 활력소가 될 것이다. | ⑤
마음을 다스린다
요가나 명상, 마사지 등으로 마음을 편하게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다. 카페인을 줄일 때 나타나는 집중력 저하나 과민증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 ⑥
숙면을 한다
흔히 피로를 깨우기 위해 카페인을 마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숙면을 해 카페인 없이도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카페인 섭취량을 줄이면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
|--|---|---|--|---|---|

Chat GPT의 모든 것

공개와 함께 그야말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Chat GPT. 인간과 대화 가능한 '새로운 종'의 출현을 미리 목격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책 한 권으로도 그 내용과 가능성을 설명하기 부족한 Chat GPT, <GPT제너레이션>의 저자인 이시한 교수가 그 핵심만 콕 짚어 이야기한다.

글 이시한

Chat GPT

이시한

연세대학교에서 국문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과정을 받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술, 인문, 경제에 관해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작가로 <메타버스의 시대>, <지식편의점> 시리즈, <이시한의 열두달 북클럽> 등 80여 권의 책을 냈다. tvN <문제의 남자>의 기획에 참여하고 고정 출연했으며, EBS <최종 면접>, MBN <직장의 신>, KBS라디오 <김난도의 트렌드 플러스>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한 바 있다.

Chat GPT는 OpenAI에서 개발한 초거대 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이다. 쉽게 생각하면 사람의 질문에 반응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생성해 주는 기계라고 이해하면 된다. Chat GPT가 유독 화제가 되는 이유는 바둑이나 그림처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언어에 특화된 AI 모델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는 데다가 누구나 Chat GPT 사이트에 접속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AI나 메타버스 같은 기술이 나왔을 때 화제는 되었지만 실제로 대중들이 경험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었다. 그런데 Chat GPT는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프로젝트 형태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직접 사용해 보고 그 위력을 체감하는 중이다.

대화하는 인공지능이 바꿀 변화

Chat GPT로 인해 맞이하게 되는 미래의 변화를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まずは Chat GPT는 원하는 결과를 여기저기 헤맬 필요 없이 한 번에 찾아주니 더 이상 사람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검색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30여 년간 구글이나 네이버가 만들어 낸 독점적인 IT업계의 지형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두 번째 단계의 변화는 일자리 대체 문제다. Chat GPT는 글이나 자료를 분석하고, 쓰고, 활용하는 차원의 일들은 거의 할 수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행정직이나 전문직의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다. 정보를 분석하고 비용 계획을 세워주는 애널리스트나 컨설턴트의 일, 기자의 기사 작성, 법조인들의 판결문, 항소장 쓰기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마케터들의 광고 카피 작성, 작가들의 글, 시나리오 같은 것도 쓸 수 있다. 사실 우리가 회사원이라고 칭할 때 보통 지칭하는 '사무직 직장인'의 업무 대부분이 Chat GPT로 가능하다. Chat GPT로 일자리가 없어지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다는 희망도 있긴 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체되는 일자리의 구성원이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마케터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AI보안 전문가의 일자리는 늘어나겠지만, 마케터를 하던 사람이 AI보안 일을 갑자기 할 수는 없으니 결국 Chat GPT가 현재의 일자리 질서를 흔든다는 것은 틀림없는 미래라고 할 수 있다.

검색 그 이상의 '연결'

여기까지만 해도 큰 변화지만, 사실은 진짜 크고 깊은 변화가 남아 있다. 바로 세 번째 단계의 변화다. Chat GPT와 대화를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인간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Chat GPT가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있다는 것인데, 기계가 인간의 말을 이해한다는 개념은 애매한 구석이 있으니, 정확하게는 '인간과 대화가 될 정도로 맥락 파악을 잘한다'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데 바로 이 특성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Chat GPT 자체는 그저 인간과 대화하고, 인간이 원하는 검색 결과를 내어주는 언어모델일 뿐이지만,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다른 프로그램과 연결되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가령 오피스 프로그램인 엑셀과 연결되면 인간의 언어로 엑셀을 조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파워포인트와 연결해서 자동으로 PPT 슬라이드를 생성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시도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이크로 소프트가 아예 오피스 365에 Chat GPT를 연결한 코파일럿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조만간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품으로 나온다. Chat GPT는 잘 몰라도 기존의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를 썼던 사람이라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PPT로 10장짜리 발표 자료를 30초 안에 만들고, 워드로 자동으로 기획안을 생성하는 시대가 다가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Chat GPT를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게임 엔진과 연결하면 사람의 말로 게임을 개발할 수도 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런 시도를 한 영상들을 볼 수 있다. 아직은 완벽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게임개발을 할 때 필요한 개발자는 프로그래머가 아닌, 상상력과 인문학적 지식이 풍부한 문과생이 될 것이다.

GPT의 확장은 어디까지?

API는 프로그램에 Chat GPT를 다는 것이라면, Chat GPT 안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끌어다 붙여 놓아 연결하는 플러그인도 있다. 그러면 Chat GPT를 쓰다가 여러 서비스들과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실행까지 된다. 예를 들어 한 달 후의 동남아 여행 계획을 Chat GPT로 짜다가, 이대로 예약해달라고 하면 플러그인으로 들어온 익스피디아라는 여행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까지 한 번에 되는 것이다. 플러그인으로 많은 서비스들이 들어올수록 Chat GPT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 또 하나의 연결이 있다. Chat GPT와 IoT로 주변 사물들과 연결되면 우리 주변의 모든 하드웨어 역시 사람의 말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Chat GPT는 단순히 사람 말을 알아들을 뿐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다른 프로그램, 서비스, 하드웨어들과 연결되며, 그 모든 것을 사람의 말로 조정하게 만드는 컨트롤러 역할을 해주게 된다. 이런 구조를 게이트 형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게이트 형 플랫폼의 게이트 역할을 하는 Chat GPT는 그래서 일정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닌,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처리해 주는 인공지능 비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대부분의 서비스나 비즈니스들이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설계되었듯이 이제는 모든 인간의 라이프스타일이 Chat GPT를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사람의 말처럼 편한 인터페이스는 또 없으니까 말이다. 결국 이 변화에서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가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문제점은 있다

물론 이 같은 미래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따른다. 하지만 현재 이야기가 되는 할루시이션의 오류(거짓말하는 문제)라든가 저작권 문제는 핵심이 아니다. 할루시이션은 데이터가 보강되고, 검증이 고도화되면 해결될 문제다. 그리고 저작권 문제 역시 만들어진 생성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학습자료로 제공되는 데이터들의 사용에 대한 문제라 그에 대한 법적인 가이드를 이제 합의해서 나가면 된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 발달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독점 테크 권력의 탄생이다. Chat GPT로 각종 프로그램, 서비스, 하드웨어들이 연결된다면 결국 그 Chat GP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데이터를 손에 거머쥐는 것이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서로를 견제하면서 이런 키 서비스의 위치를 서로가 차지하려고 무한 경쟁 중인데, Chat GPT를 손에 넣은 마이크로 소프트가 한 발짝 정도 앞서 있는 상태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한국의 경쟁력은 눈에 띄게 떨어져서 자칫 데이터 식민지로 전락할 우려까지 있다. 데이터 주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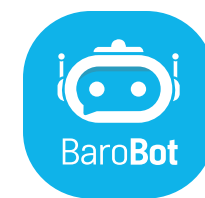
지금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 '질문력'

그렇다면 이런 AI시대에 인간의 자리는 어디일까? AI는 도구다. 도구라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목적과 방향이 정확하다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는 보조물이다. 그래서 인간의 역할은 방향을 잡고, 지시를 하는 것이다. 기획을 하고 비전을 만들며 지시를 하는 능력들이 필요하다.

또한 흔히 질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질문력이라는 말은 상당히 애매한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질문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는 의미이므로, 질문력의 핵심이 바로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핵심을 끄집어내고,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AI가 만드는 결과물들을 새롭게 연결하고, 편집하는 연결의 능력과 재구성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우건설 '바로봇'을 아시나요?



회사가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추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내 업무용 챗봇 서비스 '바로봇(BaroBot)'을 오픈했다. 바로봇은 1:1 비대면 업무 수행

형태로 설계되어 24시간 동안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업무 관련 문의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다. 바로봇의 최초 서비스 분야는 IT, 총무, 복리후생 등 업무 지원 부문이다. 회사는 향후 바로봇을 단순 문의 응대를 벗어나, 다양한 업무시스템과 연계해 수행 범위를 확장하고 Chat GPT API를 적용해 최적화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상공감툰
글/그림 키몽
<육퇴도 칼퇴>

1



2



3



4



〈대우건설인〉 3+4월호 독자 의견 당첨



전은정 서부지역토목조경팀 송주철 과장

‘길을 만드는 사람들’을 읽고 그 가치에 대해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서 느낄 수 있는 설렘과 기쁨, 그리고 길 전문가 네 분의 인생의 길을 볼 수 있어서 몽클했습니다. 내 인생의 길과 내가 걸어온 길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3+4월호 1등 선물
삼성 갤럭시 스마트워치4



스마트기술기획팀 김설하 사원

토목본부의 수주 소식은 회사의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어 자부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사업의 의미, 어려움, 동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이루어 낸 팀의 팀워크를 알 수 있었습니다. 대우건설 파이팅!

해외토목기술팀 강연익 부장

‘알면 알수록 흥미진진한 알제리’ 칼럼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현재 토목본부가 이라크에 집중하고 있지만, 알제리 현장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라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한 알제리지만 직원들의 도전정신에 존경을 보냅니다.



기계설계팀 김성준 차장

꿈과 길을 연결하고 그 길을 만드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소중한 칼럼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는 어떤 길이 펼쳐질까요?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일 수도 있고, 내가 새롭게 개척한 도로일 수도 있겠죠. 그 길이 어떠한 든든한 동료들이 있어 사뿐히 즈려밟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준비반(휴직) 박주형 대리

MZ세대의 중간에 있는 저는 선배들이 우리 세대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었는데, ‘선배 보고서’에서 가감 없이 생각을 글로 표현해주셔서 흥미로웠습니다. 실패를 먼저 고민하기보다는 도전해보는 열정과 패기에 자극받는다고 하시는 것을 보고, 이러한 장점을 잘 살려 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해구산푸르지오파크테르현장 정해성 차장

2030세대 소비에 대해 흥미롭게 소개해 주어 재미있게 봤습니다. 중간관리자 위치에서 MZ세대 직원들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 같이 근무하는 젊은 직원들과 더 잘 소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지영 이라크신항만1단계PJ(현장) 백호규 과장

2011년 남편의 해외 현장이 알제리 젠텐항이었어요. 알제리에서의 생활이 어떤지는 잘 몰랐는데 이제야 간접적이지만 조금 알 것 같아요. 지금도 남편은 해외에 있는데, 그때는 신혼일 때라 지금과는 달리 매일 영상통화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평택포승지식산업센터현장 이창진 과장

상상으로 그려진 길만큼이나 다양한 의미와 영역으로 ‘길’을 개척해 나아가고 있는 선배님들의 글을 읽다 보니 ‘나의 길’은 어떤 모습으로 칠하고 뽀여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가로세로 낱말 퀴즈 정답 및 당첨자 발표

동				엘		
부	동	산		하		
간				라	마	단
선				쉬		
				하		
	시		이	천	마	장
	베		라		젠	
브	리	파	크		타	
	아					

당첨자

- 고은서(예산관리팀 고광일 차장)
- 염루아(토목연구팀 엄정열 선임연구원)
- 정애리(전기계장설계팀 양순철 과장)
- 기획조정실(파견) 양석진 차장
- 성남산성구역주택재개발정비현장 정정원 부장

〈대우건설인〉에 참여해주세요!



좌측 QR 코드를 스마트폰의 QR 리더기로 스캔해 모바일 버전 〈대우건설인〉을 만나 보세요. 모바일 사보 주소(m.dwconstin.com)를 입력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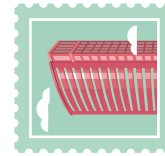


대우건설 사보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6월호 선물

- 1등 스메그 토스터
- 2등 기프트콘 3만원 상당
- 3등 스타벅스 음료권 1만원 상당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minjung.kim@daewooenc.com
02-2288-3297



Keep the Summer Vives



바깥은 초여름

To

절취선대로 뜯어서 대우건설
50주년 기념 엽서를 소장해보세요.

봄과 여름 사이, 혹시 지금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나요? 다정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

여름을 꺼리는 사람도 이 시기는 반기게 되죠. 이맘때, 공원은 늘 사람들로 북적거려요.

일광욕을 즐겨도 좋고, 나무 그늘에 잠시 앉아 쉬기에도 좋으니까요.

공원이 아니어도 점심을 먹고 잠시 잠깐 빌딩 숲을 한 바퀴 걸어보세요.

세상이 푸르러지는 5월과 6월, 팔랑팔랑 가로수를 흔들며 지나온 바람에서

풀 향기가 느껴질 거예요. 한 템포 늦게 찾아와 한 박자 일찍 끝나는 초여름을 놓치지 말고,

이 시기를 충분히 즐겨 보세요. 복잡한 고민, 무거운 잡념 따위를 저 멀리 달아날 만큼, 반짝반짝,

지금은 세상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으니까요.